

WTO체제하에서 EU의 양돈산업 전망(상)

Knud Buhl

(덴마크돈육기구연합 국제업무부장)

1. 생산

EU는 연간 1,500만톤 이상의 돈육생산으로 세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EU는 전세계 돈육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3,000만 톤을 생산하는 중국에는 뒤진다. EU 생산량의 절반 정도인 8백만 톤을 생산하는 미국이 세번째 생산국이다.

EU에서 돈육의 가장 중요한 육류공급원이다. EU의 연간 돈육생산량 1,520만톤은 쇠고기 760만톤, 가금류 720만톤, 양고기 110만톤과 비교된다.

2. 소비

돈육 및 가금육의 상대적 중요성은 최근 십여년간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부분의 희생과 함께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물론 돈육 및 가금육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함께 커졌다. EU의 3억5천만명의 인구는 매년 144만톤의 돈육을 소비한다. 1960년 이후 유럽의 1인당 돈육소비비는 24.4kg에서 40.8kg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쇠고기와 송아지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21.0kg에서 20.3kg으로 감소했다. EU의

돈육소비비는 세계적으로 높다. EU의 40.8kg 소비수준은 미국의 30.9kg, 일본의 16.7kg, 한국의 14.5kg과 비교된다.

EU의 1인당 육류소비량 84.1kg 중 거의 절반이 돈육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에서 돈육의 상대적 중요성은 EU의 경우를 능가한다. 그중 한 나라가 한국으로 총 육류소비의 57%를 돈육이 차지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돈육소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대체로 생산추이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실제 구매력 측면에서 돈육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와 같은 점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발전은 EU의 농업생산품 중 돈육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3. 외부 교역

EU의 돈육 외부교역은 103~105%에서 변화하는 자급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적으로 EU는 신선육, 잡육, 돈지의 형태로 생체를 수입하며 특별가공품과 더불어 고부가가치의 신선 및 냉동부분육을 수출한다. 연간 수입량은 50~100,000톤이며 반면에 수출량

은 매년 변화가 있으며 전형적으로 50~80만톤의 범위를 보인다.

연간 150만톤 이상의 생산에 비교하여 볼 때 50~80만톤의 수출은 미미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런 상대적으로 적은 EU역의 국가와의 교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내의 가격형성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급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변화도 가격형성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EU는 실제적으로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 돈육을 수출한다. 가장 중요한 두개의 수출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미국이다. 그러나, 1990년 이래로 구소련과 동구는 EU의 중요한 수출 출구 역할을 해 왔다. 1994년부터 한국이 고품질의 돈육 부분육을 EU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EU역내 교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돈육교역은 1994년에 265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런 규모에 비춰 볼 때 EU는 물동량의 37% 정도를 차지하며 국제돈육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참여자로 자리매김된다. 다른 중요한 수출국은 대만, 미국, 캐나다, 중국이다.

4. 구조

EU 돈육부문의 개략적 위치에 대해 서술했는데 그것은 역내의 주목할 만한 지역적 차이로써 특징지어진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균적인 통계수치는 EU 돈육부문의 진정한 구조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뒤이어 지역적 차이에 대해 조명할 것이다.

일반적인 발표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돈육은 EU에서 농업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품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상대적 돈육생산의 중요성은 EU 지역내에서 국가별로 다르다. 즉, 덴마크에서는 총 농업생산량의 3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리스에서는 4%를 차지하여 가장 적다.

최근 십여 년간 농장부문은 좀더 적고, 크고, 특화된

단위로의 인상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특화단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농장의 22%에 해당하는 1.5백만 농장에서 돼지사양이 여전히 이루어진다. 돈육생산의 구조는 육성돈가, 육성돈가/비육돈가, 비육돈가의 분류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단위의 크기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EU의 평균농장돼지두수는 66두이고,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350~475두이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에서의 평균돈군 크기는 15~82두로 변이를 보인다. EU 가입국가의 평균돈군크기 분류는 돈육업계의 진정한 시장구조를 모호하게 한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18%의 생산자가 70%의 돼지를 생산하고 이들 생산업자는 농장당 연간 2,300두의 돼지를 도축장으로 보낸다.

지정학적으로 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의 평균 농장크기는 지정학적 차이와 특별단지화 때문에 더욱 더 진정한 구조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돈생산의 77%가 그 나라의 북쪽에 있는 농장의 1% 이하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농장의 평균 크기는 이탈리아 전체농장의 평균 크기가 24마리인 것과 비교하여 1,808마리의 돼지 사양규모이다.

유럽의 돈육부문에서 생산성을 보면 그 상황은 거대한 다양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년당, 모돈당 생산된 돼지의 수는 포르투갈의 11마리에서 아일랜드, 프랑스, 그리고 덴마크와 같은 나라에서 평균 20마리의 범위에 다.

5. 지역적 전문화

유럽 돈육부문을 향한 시장은 점점 더 EU영토 안에 있는 특별한 나라의 지역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특히 덴마크, 독일의 북서부, 네덜란드, 벨기에의 북쪽, 프랑스의 브리타니,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롬바디아이다.

이러한 제한된 지리학적 지역에서 돈육생산 집중은 값싼 사료의 근접과 큰 항구 또는 여유로운 노동력을 가진 작은 농가들의 구조와 같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다. 이 생산의 집중은 농장 뿐 아니라 배합사료공장과 도살장에서의 커다란 규모의 생산성의 경제적 장점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전문화 된 돈육생산지역의 북부에서 양돈가와 도살장은 강하게 통합되어 있고 이는 덴마크도 같은 경우이다. 전문화 된 돈육생산지역의 남부지역에서 이 통합은 배합사료공장과 양돈가에 더 강한 통합이 있는 경향이 있다.

6. 환경

일부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돼지 생산의 집중에 대한 불리한 점은 오염문제인데 이는 비료의 초과량이 땅에 퍼져서 지하수로의 너무 많은 질산염 유입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오염을 측정하는 효과적 방법들이 이미 EU의 몇몇 나라에서 취해졌다. 특히 덴마크와 그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와 벨기에 등으로 퍼졌다. EU차원에서 1991년 각국 장관회의에서 농업에서 배출된 질산염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지하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법률은 2000년 전까지 효용성이 완전히 생긴 것이 아니고 몇몇 나라는 2004년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EU의 질산염 규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농업에서 배출된 질산염의 이용은 헥타당 170kg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산염의 수준은 땅의 식물에 의해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지하수의 오염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응하기 위해선 자돈비육을 포함한 340마리의 모돈을 가진 전형적인 농장은 200헥타의 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제에 의해 가장 영향 받는 지역은 당연히 가장 높은 밀도의 돼지사양을 한다고 전에 언급된 지역일 것이다. 헥타당 농업에서 배출된 평균 수준의 질산염 생산도 EU의 필요량에 초과되는 것을 볼때 헥타당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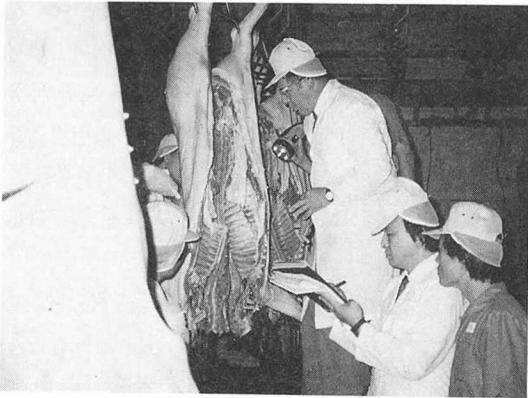
년에 농업에서 배출된 질산염의 양이 87kg인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EU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EU의 필요량을 초과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이 문제는 헥타당 평균 257kg의 질산염을 생산함을 감안할 때 최악으로 보인다. 그 일년의 질산염 생산은 전문화 된 지역에선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농장단계의 문제는 평균 수치가 나타낸 것보다 더 크다. 초과문제를 가진 농장소유자의 숫자는 네덜란드 전체의 63%에서 프랑스의 브리타리에서 22%의 범위이다. 덴마크에서 그 숫자는 26%이다. 하지만 덴마크 양돈업자는 이미 EU의 질산염 규제에 적응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에는 오늘날 법률에 의해 이미 필요한 농장들을 연결함으로써 비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7. 내부 교역

돈육생산의 지역적 전문화의 또다른 결과는 그 사회에서의 꾸준히 증가하는 내부 교역이었다. 회원국가 사이의 이러한 교역은 현재 해마다 약 3백만톤을 헤아리고 있다. 이러한 교역은 도체육, 생축, 신선하거나 냉동한 부분육과 같은 가공된 생산물의 모든 종류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내부 교역은 전문화를 반영하고 그래서 교역의 증가하는 분야는 더욱 정교한 부분육과 가공생산품의 형태로 나타난다.

EU의 내부적 국경선을 가로지르는 교역을 떠나 장거리의 큰 무역은 집약된 양돈생산을 하는 덜 밀집된 지역과 더욱 도심화 된 지역사이의 지리학적으로 더 큰 EU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유럽 돈육부문의 전문화는 자급률이 그리이스의 65%에서 덴마크의 400% 이상의 정도로 단일 회원국가에서도 넓은 범위로 표현된다. 이는 1994년 160만톤의 덴마크 돈육생산의 총합에서 덴마크는 120만톤을 수출했음을 의미한다. 그중 76만톤은 EU의 다른 국가들로 수출하였고 나머지 48만톤은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수출하였다.



덴마크가 EU 돈육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다른 EU 회원국가와는 다른 수의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EU법률이 유럽의 하부 수의조직을 개선시키기 위해 설정되기 전에 덴마크의 세계시장의 높은 품질을 위한 수의적 필요에 여러 해 동안 대응해 왔다. 비록 덴마크가 EU의 수의적 화합에 환영해 왔지만, 여러 해 동안 수의적 필요를 취한 것은 덴마크 수의당국이 수출시장을 위한 수의적 필요의 성취를 보호함을 유지해 오던 나라에 대하여 중요한 우선권을 가지게 해주었다.

8. 분류

EU시장에서 가격형성의 투명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양돈가들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EU에서는 모든 돼지를 도살할 때부터, 60% 이상의 살코기 함량을 가진 가장 좋은 Super의 S등급으로 시작하고 살코기함량에 따른 여섯 등급의 분류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S등급 아래의 등급 E, U, R, O 그리고 P 등급이다. U등급은 살코기 함량이 50~55%의 유럽인 표준등급으로 정의한다.

유럽 등급체계의 설립 이후 돼지도체의 질은 다른 나라들의 향상된 사육기술의 결과로써 더 높은 살코기 함량으로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1987년에 도체의 43%가 표준등급 U로 분류되었고 24%가 그 이상의 등급

으로, 33%가 그 아래의 등급으로 분류됐다. 오늘날 도체의 33%가 표준등급 U로 분류되고 49%가 그 이상의 등급을 받는다.

또한 분류의 한 면은 유럽의 생산은 동질성과 거리가 먼 것을 반영해 준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도살된 돼지의 단지 5%가 표준등급 U를 받고 95%는 표준보다 위인 Super와 E등급을 받는 반면 스페인과 같은 나라는 단지 도살된 돼지의 5%만이 표준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다.

9. 가격

매주 각 회원국들은 EU위원회에 표준등급 U에 대한 평균가격을 보고한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U등급에 대한 사양가들에게 알려줄 주간 평균 가격을 계산하고 유럽의 평균 판매가격-소위 참고가격-으로 그것을 공시한다. 판매에 대한 투명성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도 참고가격은 일반 판매관리인들에게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 수년에 걸쳐 EU의 참고가격은 낮은 위치에 있었다.

EU의 양돈가들에게 경제상황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돈육가격 상승 이외에도 사료가격 상승 또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소위 pig/feed price index라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 돈육생산에서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3년 간격의 주기를 관찰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1년반 동안의 공급과잉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종돈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1995년에 관련 산업들도 2~3%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1995년 후반에는 돼지사양가들에게 더욱 밝은 경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10. 미래의 전망

유럽의 돈육산업부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본고의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인 유럽의 돈육산업의 미래에의 전망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유럽 돈육부문을 위한 기본 골격을 바꾸는 선언이 GATT의 핵심정책들을 만들고 그전의 서유럽경제블록에서 새롭게 시도되며, 유럽연합까지 확장되고 일반적인 농업정책을 수정시키고 있다.

GATT체제에 농업부분이 포함된 원래의 목적은 자유무역과 열린 세계시장이었다. 그 체제의 마지막 결론은 시장접근, 수출보조금과 국가내부보조의 부분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 하는 것에 동의하고 말았다.

새로운 GATT협약의 골격은 궁극적으로 SPS협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SPS협정은 수입제한의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이 기술적인 무역장벽에 의해 방해받지 못함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유럽의 농업시장전망이라는 면에서 SPS협약이 한편으로 수입하는 측으로서 유럽연합의 이익과 다르게는 수출하는 측으로서의 손해의 좋은 균형을 파괴할 것이다.

11. 현재의 시장기구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유럽시장의 구조 뿐만 아니라 기본성격을 이해해야만 한다. 결국에는 돈육시장의 일반적인 방해요소들이 곡물, 우유, 쇠고기와 같은 다른 주요 유럽 농업산업부분들의 무역에 비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돈육부문에서는 대조적으로 관리자, 수출입자들의 최소가격이 없다. 매매 또한 자유롭지 않다. 웃돈을 주는 경우도, 사양가들과 직거래도 없다. 유럽의 돈육시장은 규칙적인 가격변동과 생산량에 대한 자체규정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유럽 돈육시장의 관리를 위한 주요 목적은 그러한 변화들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얻기 위한 주된 시장관리방법중의 하나는 민간이 운영하는 창고, 즉 어떤 기간동안 창고에서 돈육의 품질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업자들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이다. 민간창고에 저장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시장 침체와 사양가들의 이익을 위한 가격이 동결될 시기에 적절히 대처한다. 민간창고에 보관된 돈육과 다른 유럽농업생산부분에서 공급된 보다 더 가격적으로 구매력 있는 것들과의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제한적인 공공규제를 통한 무역의 결과로 유럽돈육 부문은 일반적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 더 높은 생산이익을 얻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더 높은 생산이익을 얻는 대신에 유럽의 돈육생산 가격은 일반적인 세계 시장수준보다 더 높다. 이러한 배경은 곡물과 사료가격에서 세계 시장보다 더 높은 수준인 유럽의 입장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유럽 사양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유럽 돈육부문-유럽 돼지 사양가들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세계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유래한 돈육은 단지 다른 사료가격에 의해 계상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유럽에 유입된다. 더욱이 수입돈육은 세계 시장의 생산가격에 의해 계산된 최소 수입가격-수문가격(水門價格, 소위 덤핑 가격)-으로 유입된다. 결국 유럽 돈육은 더 높은 가격의 사료비를 계산하여 유럽의 이윤밖의 가격으로 수출해야만 한다.

수입관세와는 달리 수출비용 요율은 고정된 수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료가격에 의한 생산비의 차이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무역은 유럽 돈육부문의 생산 능력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본고는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축협 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WTO 체제하의 양돈산업과 발전방향 국제 세미나」중 발표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